

광주국제식품전 내일 DJ센터서 개막

14일까지 4일간 열려

글로벌 푸드 트렌드 공유

180여 업체 420여 부스 운영

기관·단체관에 수출상담회도

지역 최대 종합식품박람회인 '제14회 광주국제식품전'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시 주최,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KOTRA 주관으로 열리는 '광주국제식품전'은 전시업계 최고 위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전시협회(UFI)로부터 'UFI Approved Event' 인증을 획득한 국제 수준의 식품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건강한 음식·편안한 식사'를 주제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가정간편식, 곤충식품, 기능성 식품 등 식품 산업 트렌드를 보여줄 예정이다. 180여 개 업체가 42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농수축임산물, 가공식품, 지역특산물, 유기농 및 건강기능식품, 주류·음료, 커피·디저트, 가정간편식, 식품 가공·포장·급식기기, 위생·주방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인다.

지나해에 이어 그리스 와인, 체코 맥주, 에콰도르 올리브오일, 러시아 디저트, 슬로바키아 전통식품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세계 각국의 식품을 만나볼 수 있다. 기관·단체관과 수출상담회도 운영된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우수 식품업체 교류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달빛동맹특별관'을 비롯해 전남도 우수 농식품 단체관,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농공상융합형 우수 중소기업관', '전통식품명인관', '농협 단체관' 등이 마련된다.

'대중소기업 구매 및 수출상담회'에는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 유통사가 참여해 대형유통망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식품업체들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국·중국·일본 바이어 등 28명이 전시회 참가업체와 직접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참가업체들이 손살고등어, 다시락 등을 매일 오전 500개씩 1000원에 판매하는 얼리버드 이벤트가 전개되며, 식품명인 체험관에서는 전통명인식품 체험행사가 현장 등록으로 진행된다. 대한제국협회의 광주

대표행 개발출품작 시상행사가 새롭게 운영되며, 13회를 맞은 '행재과 페스티벌'의 제과제빵경진대회 입상작 전시 및 '케이크 만들기' 체험행사도 열린다.

'향토음식특별전'에서는 패백, 이바지 음식의 현대화를 주제로 광주 전통한정식을 전시, 맛의 고장 광주를 소개한다.

이 밖에도 광주식약청의 'HACCP발전협의회', 광주농업기술센터의 '감밭세프 김락훈의 우리 쌀 이야기',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기존식품영업자 위생교육' 등도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하면 무료입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합동청사·백리향·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광주시 '2018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선정

광주시가 '2018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에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사진), 백리향, 화정동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 등 3곳을 선정했다.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은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 자원을 보전하고 장려하기 위해 광주시가 2006년부터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공공·민간·주거부문으로 나눠 아름다운 도시문화 경관에 기여한 대지내 조경, 벽면·옥상녹화, 공개공지 조성, 가로공원·섬지공원 조성 등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공모를 진행해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주거부문에 총 28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공공성, 기능성,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각 분야별 1개 작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의 건축주에게는 광주시장이 수여되고, 시설물에는 기념동패가 부착된다. 또한 오는 31일부터 11월4일까지 열리는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부대행사의 하나로 시정 1층 시민숲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권교육·토론·문화제

10월 광주 곳곳서

다채로운 인권마을 행사

시민주도형 인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인권마을 행사가 10월 광주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수완마을에서는 11일과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수완지역아동센터에서 2회에 걸쳐 '찾아가는 인권생태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풍영정전을 주제로 생태인권교육과 풍영정전 탐방 및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노들마을에서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봉선초등학교 강당에서 '노들인권파티'를 열고, 초등학교생들이 인권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문산마을에서는 16일 오후 7기 자운영아트에서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마을주민이 모여 토론하는 '토막 인권사랑방'을 운영하고, 이어 20일에는 '마을 [] 꿈꾸다!'를 주제로 한 '문산마을문화제'가 북구 문화근린공원일대에서 개최된다.

포암마을은 27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포암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일대에서 인권과 축제가 결합된 '늘따순포암마을 문화제-마을에서 놀자'를 열고 나눔 플리마켓, 한방무료진료, 이 다키 진료 등 20여 개 체험부스 및 전래놀이 등 인권놀이, 마을 예술가들이 결합한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2018. 10. 8.(월) 15:00 광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시민운동협의회 출범 광주시는 2019수영대회를 계기로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시민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8일 정중제 행정부시장과 김갑숙 전 광주YWCA회장 등 2인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시민운동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지하철 농성역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조성

사무실 10개·세미나실 설치

청년 CEO들에 무상제공

광주 도시철도 1호선 농성역이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거듭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9일 "서구 농성역에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취업 지원 거점인 '청년 창업 메카'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 메카'는 사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창업 준비 공간에 어려움을 겪는 청

년 CEO들에게 2년간 사무공간을 무상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이를 위해 농성역 대합실과 현관광장을 잇는 연결통로의 약 248.4㎡ 규모에 사무실(10개) 및 세미나실(1개)을 조성한다.

또 창업가 선정 및 인큐베이팅 방안 마련, 창업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창업 사후 관리 등을 전담할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위탁운영자 선정자격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창업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창

업 보육 등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자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로 자세한 자격사항과 선정기준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grtc.co.kr)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농성역 '청년 창업 메카'는 지하철과 바로 연계돼 접근성이 확보되는 등 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50명의 청년 창업가 육성 등 광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산구 16일 호남대서 '청년일자리 페스티벌'

광산구가 호남대학교와 함께 오는 16일 호남대 IT스퀘어광장에서 '슬기로운 청년생활, JOB다(잡다)한 청년일자리'를 구호로 '제1회 광산구 청년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광산구 청년일자리 페스티벌은 기업채용관, 일자리 컨설팅관, 취업지원관, 기업홍보관 등 4개 분야를 마련하여 구인,구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해외 취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설명하는 등 구인, 구직자에 대한 블

라인드 채용설명회도 함께 개최한다.

특히 기업채용관에서는 한국전력공사, 금호타이어(주) 등 지역 우수기업 60개가 참여해 채용상담·면접을 실시한다. 또한 일자리 컨설팅관에서는 직무별로 현장업무와 취업준비 방법을 알려주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기업홍보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전시와 함께 그것을 만드는 기업들 청년들에게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

동구, 문화전당과 공동사업 추진 '문화협력관' 신설

광주시 동구청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생 발전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9일 동구청에 따르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행한 행정직제 개편에서 문화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문화교류협력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무관급 협력관 1명, 주사 1명이 문화전당에 상주하며

전당의 파급 효과가 동구 전역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상생협력의 첫 성과는 광주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동명동 상가 일원의 '디자인 랩' 사업이다. 디자인 랩은 유동인구가 많은 동명동 일대의 음식점과 카페, 게스트하우스, 독립서점 등 상업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성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